

# 각성한 공효진, '동백꽃 필 날' 기다려지는 이유

###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 세상을 향한 첫 포효,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선사

'동백꽃 필 무렵' 공효진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포효하며 하마의 본능을 일깨웠다.

지난 3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극본 임상춘/연출 차영훈)에서 동백 (공효진 분)이 드디어 맹수의 본능을 드러내며 각성의 시작을 알렸다.

"재수가 없다"라는 소리에 익숙한 동백의 처세술은 그저 참아내는 것이었다. 참지 말고 "사이 다들 맥어버려요"라는 용서(강하늘 분)에게, "굳이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라던 동백의 답은 그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변해주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마는 게 편하다"던 동백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나섰다.

그 계기에는 웅산의 순경이자 동백전담보안관 황용식이 있었다. 그는 여자 혼자 술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에게 백안시당하는 동백을 목격할 때마다 같이 화내주며 편파적인 편이 돼줬다.

또한 매일매일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다. 동백에게는 처음이었던 이 우레와 같은 응원. 결국 동백의 고개를 들게 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침으로 내가 막 뭐라도 된 거 같고, 너 잘났다, 훌륭하다 지겹게 말을 해주

니깐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 거 같으니까, 더는 안 참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막 피어난 동백은 맹수의 본대를 보여줬다. 자기를 지키려다 파출소에 연행된 용식에 동백은 그저 "시시껄렁한 목격자"로 출두하지 않았다.

자신을 막 대했던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긴 일명 '까멜리아의 치부책'을 낭독하며 노규태(오정세 분)가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낱알이 깨달리며 고소를 선언한 것.

그후기는 현직 경찰이 웅산 차기 군수의 임플란트를 뽑았다고 노발대발하는 규태를 순식간에

임도 뺏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마는 냥다 들어받으면 끝"이라는 엄마 정숙(이정은 분)의 예고가 증명된 순간이었다.

단번에 판도를 뒤집어버린 동백의 첫 포효는 시청자들에게 사이드로 다가왔다.

은근히 할 말은 하면서도 말끝을 잘 못 맺어 흥자영(염혜란 분)의 지적을 받았고 자신을 향한 "개소리"에도 속 시원한 일갈보단 "대조 오케이"를 속으로 되뇌었던 동백이 안타깝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뺨친 하마"가 노규태를 들어받을 땐 묵은 체증까지 속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활짝 핀 동백이 웅산을 평정할 날이, 용식과 만들어갈 기적의 로맨스가 더더욱 기다려진다.

한편 '동백꽃 필 무렵'은 매주 수, 목 오후 10시 KBS 2TV에서 방송된다.

뉴스1



## 송혜교, SNS 활동 재개...스모키 메이크업+각선미 공개



배우 송혜교가 근황을 공개했다.

송혜교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델로 활동 중인 한 브랜드의 화보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송혜교가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원피스부터 수트 차림까지 소화한 모습이 담겼다. 특히 강렬한 메이크업과 송혜교의 각선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송혜교는 최근 송중기와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팬들과 동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스타부부로서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고 다녔으나, 결혼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파경을 맞았으며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송혜교는 외국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하며 근황을 전하고 있다.

## 영화 '조커', 개봉 4일째 1위 · 178만 돌파

### '가장 보통의 연애' 2위

영화 '조커' (감독 토드 필립스)가 개봉 후 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조커'는 지난 5일 1418개 스크린에서 51만 4322명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178만 4985명을 동원했다. 이는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이다.

'조커'는 앞서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데 이어, 200만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2위는 '조커'와 같은 날 개봉한 한국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감독 김한결)로 같은 날 1068개 스크린에서 24만 7284명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84만 7509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퍼펙트맨' (감독 용수)은 이날 803개 스크린에서 12만 6183명을 동원, 누적관객수 54만 844명을 기록했다.

한편 '조커'는 고담시의 광대 아서 플레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변해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잭 니콜슨과 히스 레저 등 전설적인 배우들이 연기했던 조커 역을 연기한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 '장사리' 개봉 11일만에 100만 돌파...김명민→곽경택 감독 인증샷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감독 곽경택, 김태훈)이 100만을 돌파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는 11일 만에 누적관객수 100만 5014명을 동원했다.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은 평균나이 17세, 혼련기간 단 2주, 역사에 숨겨진 772명 학도병들이 인선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투

입되었던 장사상륙작전을 그린 작품으로 개봉 이후 세대불문 관객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에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은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100만 돌파 인증샷을 공개했다. 학도병 역을 맡은 장지건, 이호정, 김성철이 100만 관객 돌파 기념 풍선을 감쪽한 표정을 담아 머리 위로 들고 있고, 광시양이 관객을 향한 온몸 하트를 발사하는 사랑스러운 포즈를



취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김명민과 김인권, 곽경택 감독과 김태훈 감독이 훈훈한 미소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으로 100만 돌파의 기쁨을 전한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광주광역시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